



UZBEKISTAN-KOREA: CURRENT AND PROSPECTS OF MUTUAL COOPE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ПОНИМА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 ПОМОЩЬЮ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ПХАНСОРИ

Аннотация. Пхансори – это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искусство, которое в 2003 году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качестве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уникальным голосам, увлекательным историям и богатой музыке пхансори уже давно пользует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публики. Хотя пхансори было темой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и литературы, его также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область устного рассказывания историй, когда исполнители пхансори общаются со своей аудиторией и создают нов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о время выступлений исполнители пхансори добавляют анекдоты, ярко изображающие жизнь персонажей, отражающие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и культуру людей того времен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хансори может быть цен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источником для понимания культуры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включая социальные обычаи и народные верования. Эта стать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изуч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знания и народных верований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цев путем изучения содержания пхансори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сточник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пхансори, всемирн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ЮНЕСКО, устная история, общественное сознание, народные верования.

PANSORI YUNESKONING JAHON MADANIY MEROSI ORQALI KOREYA MADANIYATINI TUSHUNISH

Annotatsiya. Pansori – an’anaviy koreys san’ati bo’lib, 2003-yilda YUNESKONing Jahon madaniy merosi ro’xatiga kiritilgan. O’zining noyob ovozi, jozibali hikoyalari va boy kuyi bilan pansori uzoq vaqtdan beri ommaning sevimli musiqasi bo’lib kelgan. Pansori xalq musiqasi va adabiyotining mavzusi bo’lsa-da, uni og’zaki hikoya qilish sohasi sifatida ham ko’rish mumkin, bu yerda pansori ijrochilari o’z tomoshabinlari bilan muloqot qiladilar va yangi asarlar yaratadilar. Spektakl davomida pansoriy ijrochilar o’sha davr odamlarining kundalik hayoti va madaniyatini aks ettiruvchi qahramonlar hayotini yorqin aks ettiruvchi latifalar qo’shadilar. Shunday qilib, pansori Choson sulolasi madaniyatini, jumladan, ijtimoiy urf-odatlar va xalq

e'tiqodlarini tushunish uchun qimmatli tarixiy manba bo'lishi mumkin. Ushbu maqola pansorining tarixiy manba sifatida mazmunini o'rganish orqali an'anaviy koreyslarning ijtimoiy ongi va xalq e'tiqodlarini o'rganishga qaratilgan.

Asosiy so'z va tushunchalar: Pansori, YUNESKOning Jahon madaniy merosi, og'izaki tarix, jamoatchilik ongi, xalq e'tiqodi.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와 한국 문화 이해

최소영

타슈켄트 국립동방학대학교, sophiauz@hanmail.net

Choi So Young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THROUGH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PANSORI

Abstract: Pansori is a traditional Korean art that was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in 2003. With its unique voices, captivating stories, and rich music, pansori has been popular among the public for a long time. While pansori has been a topic in folk music and literature, it can also be seen as a field of oral tradition storytelling, as pansori performers communicate with their audience and create new pieces. During the performances, pansori performers add anecdotes that vividly depict the lives of the characters, which reflect the daily lives and culture of the people of the time. Thus, pansori can be a valuable historical source for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social customs and folk belief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folk beliefs of traditional Koreans by exploring the content of pansori as a historical source.

Keywords: Pansori,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Oral history, Social Consciousness, Folk Beliefs

1. 서론

오랜 기간 역사 연구는 문자로 된 사료에 의존해 정치와 경제 제도, 전쟁, 국제관계, 신분 체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나 사회 체제의 외형적인 모습을 구현해 내는 것에 집중해 왔었다. 즉 레오폴드 폰 랑케(1795-1886)의 주장대로 수많은 자료를 찾아서 존재했던 진실 그대로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이자 역사 연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이에 과거 사회의 구조적인 형태에 대한 이해는 많이 높아졌지만,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감정과 인식, 세계관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었다. 이러한 역사 연구 방향에 대한 비판으로 20 세기에 아날학파가 등장한 이후 역사 연구는 일반 민중의 의식주나 통과 의례,

민간신앙, 가족, 죽음 등과 같은 일상적 생활과 이에 바탕을 둔 사회공동체의 집단 인식에 대한 주제로 다양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한국사 연구에서도 비슷하다. 전통적으로 정치사나 경제사에 집중되었던 한국사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미시사나 일상사에 대한 연구로 주제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주제가 폭넓어지면서 그림, 의복, 생활용품 등 다양한 자료들을 사료로 활용하게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실증적인 문자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 연구는 정치경제사에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일반 민중들의 실제적인 삶과 세계관이나 집단 무의식, 정치관과 같은 정신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인데, 이는 일반 민중들이 문자기록의 생산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기록 생산자인 당대의 학자들에게는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겨진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민중의 삶이나 세계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는데, 기존의 지배계층이 생산한 문자로 된 자료가 아니라 민중들이 집단 생산한 자료인 설화나 민담, 판소리 예술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설화나 민담, 판소리 판본 등은 구비문학의 장르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 작품들이야말로 민중들에게 구전으로 전승되면서 집단 창작의 단계를 거치며 당대 사람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수용한 일반 민중의 문화연구를 위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소리 작품들을 사료로 활용해 조선시대 후기 민중들의 정치의식과 종교의식을 살펴볼 예정이다.

2. 판소리의 사료적 가치

흔히 역사학에서의 사료는 글로 기록된 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원사료인가 혹은 분석·해석한 것인가에 따라 1차 사료와 2차 사료로 구분된다. 그리고 역사연구는 주로 이러한 사료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된 역사의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질 수 없다. 김광수는 아프리카의 역사학에 대해 논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록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구전을 통해 역사가 전해지는데, 이는 구전역사가나 주술사, 연장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화, 전설, 속담, 음악 등을 통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한다고 보았다(김광수, 2012).

기록된 역사는 문자 그대로 글로 쓰여진 역사이고, 구비 역사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말로 전해지다가 구비문학이나 민속문학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특히 신화나 전설은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 역사적인 사건이 구비전승 되다가 후에 문학으로 형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록된 신화, 전설, 설화 등도 역사적 사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장장식, 2012, 120-121)

그렇다면 아프리카와 달리 문자가 존재하고 글로 쓰여진 역사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구비전승도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임재해는 설화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옛날 이야기이며,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역사적 사실을 갈무리하기 때문에 역사 그 자체라고 판단하였다. 즉, 그는 설화는 충분히 역사학의

연구대상인 ‘사료’가 될 수 있으며, 과거의 삶을 일정하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사 서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임재해, 2001, 244-245)

임재해는 설화가 인물사나 생활사, 사상사, 문화사, 지역사, 가족사 등 과거 인간 행위를 포함하는 객관적이며 집단적인 역사이면서도, 이야기꾼이 청자의 상황에 맞춰 각색하고 재구성하면서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역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유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설화를 많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국사기’보다 해석의 여지가 많고, 고대의 생활사와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임재해, 2001, 247-248)

설화나 신화처럼 구비 전승되었던 이야기가 있으니 바로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2003년에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로 독특한 목소리와 해학적인 이야기, 풍부한 음악 등으로 오랫동안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유네스코는 판소리가 "전통적인 연극 예술로서 인류의 창의력과 예술성을 대변하며, 문화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흔히 판소리 예술의 음악적 요소는 민속악으로 분류되고, 판소리 소설은 문학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판소리 또한 설화와 마찬가지로 소리꾼에 의해 전승된 한민족의 집단적인 역사이다. 판소리의 역사 사료적 가치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연구되어지고 있다. 설성경은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이방원은 광해군과 인조 때의 성이성이라는 실존 인물일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청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시대의 효녀 지은 설화와 거타지 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흥부가는 신라시대의 방이 설화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판소리는 실존 인물의 경험담이나 실존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인물에서 비롯된 삶의 이야기이며, 영웅적인 인물의 삶이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기록된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평민들의 삶이 녹아든 구비역사인 것이다. 또한 판소리는 지역별로 다른 고유한 언어와 노래, 춤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각 지역의 집단적의 특징을 파악하는 사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 혹은 하나의 집단에 의해 기록된 문자 사료와는 다른 판소리 예술이 지닌 장점인 것이다.

물론 구술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창작자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변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지만, 문자로 남겨진 사료도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다른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다양한 판본을 지닌 판소리는 비교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단창작으로 완성되어졌다는 속성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시각이 아닌 당대의 집단이 공감하여 ‘말’로 기록된 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기록된 역사와는 달리 판소리를 사료로서 연구할 때는 많은 주의점이 요구된다. 우선 제비가 물어준 박씨에서 보물이 나온다는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환생한다는가 자라가 토끼를 수궁으로 피어내는 것과 같이 명확히 허구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허구적인 내용은 오히려 정사(正史)에는 기록되지 못하는 당대 민중의 심리와 의식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동안은 기록된 사료에 의해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에 집중된 역사연구였다면,

판소리는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신문화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조선 후기 민중의 생활과 사회의식

판소리는 17 세기에 발생하여 영·정조 시기를 거치며 발전하고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전승되었는데, 초기에는 한 마당의 길이가 길지 않아서 열두 마당이 존재했으나 소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현실성 없는 소재는 사라지고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 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 마당이 예술적으로 다듬어져서 남게 되었다.¹

초기에 짧았던 판소리 마당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은 청중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요구가 판소리 사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민중들의 연희로 시작되었던 판소리는 차츰 중인과 양반 계층도 참여하게 되면서 전 계층을 아우르는 예술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² 따라서 판소리는 민중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도 양반 계층의 욕구도 채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몽룡이 과거시험을 보는 장소에 대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양반 청중들을 의식한 사설(辭說)일 것이다.

장중(場中)에 들어가니 백설백목(白雪白木) 차일장막(遮日帳幕) 구름같이 높이 뿔다. 어탑(御榻)을 양면(仰面)허니 홍일산(紅日傘) 홍양산(紅陽傘) 봉미선(鳳尾扇)이 완연허구나. 시위(侍衛)를 바라보니 병조판서 봉명기(奉命記), 도총관 별련군관 승사각신이 늘어섰다. 중앙의 어영대장 선상(先廂)의 훈련대장, 도감중군(都監中軍) 칠백 명, 삼영군(三營軍)의 자개창 일광을 희롱혈 제…… (김세종제 춘향가, 김현룡(1), 2019, 173)³

조선시대 사회에서 과거 시험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수단이었으며, 양반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였다. 특히 대과의 최종 시험에는 왕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권력자가 모여 위용을 뽐냈는데, 춘향가에는 왕과 신하들의 권위와 위상을 강조하는 장식과 의복을 묘사함으로써 양반들도 판소리 공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지만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설을 통해 민중들의 고난과 비판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판소리의 주제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철학인 충, 효, 정절, 우애 등의 유교적 덕목이지만, 이면적인

¹ <https://heritage.unesco.or.kr/%ED%8C%90%EC%86%8C%EB%A6%AC/?ckattempt=1> (2022년 10월 31일 검색)

² 한국민속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226> (2022년 10월 31일)

³ 이 문장을 현대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 장에 들어가니 하얀 눈과 나무가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장막처럼 높이 솟아 있었다. 왕의 자리를 올려다보니 붉은 우산과 부채가 화려하게 보였다. 경비를 보니 병조판서의 깃발, 도총관의 금관, 승사각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중앙에는 어영대장, 앞쪽에는 훈련대장, 도감중군 칠백 명, 삼영군의 자개창이 빛을 반사하며 놀리고 있었다.

내용은 민중들의 어려운 생활과 신분제의 부당성,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비판, 지배층의 희화화 등을 담고 있다.

심청이 거동 보아라. 밥 빌러 나갈 적에 현 베 중의 다님 메고, 말만 남은 현 치마에 짓 없는 현 저고리 목만 남은 질 보선에, 청목휘항(靑木揮項) 눌러 쓰고, 바가지 옆에 끼고, 바람맞은 병신처럼 옆걸음 쳐 나갈 적에...(박유전제 심청가, 김현룡(3), 2019, 61)

이 문장에서 심청은 집이 가난하여 겨울인데도 낡은 삼베 옷을 입고, 치마도 다 낡아서 허리 부분만 남아 있으며, 깃이 떨어진 낡은 저고리에 발바닥이 다 없어져 발목 부분만 남은 버선을 신고 동냥을 하러 나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심청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일반 백성들의 생활 상황을 보여주는데, 당시 많은 백성들의 빈곤하고, 옷차림이나 생활용품 등의 재화가 부족한 상황을 극의 주인공인 심청이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 생활이 어렵기는 몰락 양반도 마찬가지이다. 몰락한 양반인 흥부는 끼니를 위하여 매품팔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할 상황이 되었다.

“박생원, 품이나 하나 팔아 보시요.”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해?” “우리 골 좌수(座首)가 병영영문(兵營營門)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은 썩아 논 돈이요, 마삿까지 닷 냥 제지(除之) 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시요.”(박녹주제 흥보가, 김현룡(1), 2019, 285-287)

죄를 지은 양반이 자기 대신 매를 맞을 사람을 구하고, 돈이 필요한 가난한 민중이 대신 매를 맞는 매품팔이는 조선시대 후기의 신분질서가 무너지면서 등장하게 된다. 원래 양반은 죄를 지어도 매를 맞지 않았다. 『예기禮記』에는 ‘刑不上大夫, 禮不下庶人⁴’이라는 구절이 있어서 양반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육체적인 형벌 대신 속전이라고 부르는 벌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8 세기에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견고했던 신분 계층에 균열이 생겼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늘어났고, 장사와 대외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은 중인과 백성들이 생겨났다. 부유해진 이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양반이 되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지방관의 경우에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 그런 부패한 관리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 바로 돈으로 신분을 산 뼈대 없는 양반들이었다. 누명을 씌우거나 혹은 이런 저런 죄목으로 잡아다가 가두고 매를 친다고 협박을 가하면 돈으로 산 양반의 체면이 손상될까 두려워진 이들은 대신 매를 맞아줄 매품팔이를 구했다.⁵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의

⁴ 형벌은 사대부에 미치지 못하고, 예는 서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피지배층은 형(刑)으로 다스리고, 지배층은 예(禮)로 다스리겠다는 의미이다.

⁵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27679&bbsId=BBSMSTR_1008&mn=NS_01_09_01 (2022년 10월 31일)

『청성잡기(靑城雜記)』에는 매품팔이를 하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니 이는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민중들에게 지도층인 양반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몰락 양반인 흥부의 묘사를 보면 민중들에게 양반이란 걸치레에 치중한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흥부 치레를 볼짜시면, 철대 떨어진 헌 과립(破笠) 버릿줄 총총 매여조새 갓끈을 달아 써, 떨어진 헌 망건(網巾) 갓풀 관자(貫子) 종이 당줄 뒤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道袍)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놀러 띠고, 한 손엔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엔가는 떨어진 부채 들어,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으식비식이 들어간다. (박녹주제 흥부가, 김현룡(1), 2019, 283-285)

이 문장은 흥부가 고을 관아에 곡식을 빌리러 가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다. 흥부는 둘레가 떨어진 갓을 쓰고, 보석으로 된 관자를 달지도 못하고 망건에 아교풀로 구멍을 뚫어 종이끈을 달고서는 나름 선비랍시고 없는 살림에도 헌 도포를 입고서는 가족들이 굶고 있는 급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옆으로 흔들며 팔자걸음으로 관아를 방문한다. 이는 빛을 내려 가는 궁한 처지이면서도 체면치레를 하려는 양반의 허세를 비웃는 장면인 것이다. 흥부의 허세는 계속된다.

내가 아무리 궁수남아(窮手男兒)가 되었을망정 반남박가(潘南朴哥) 양반(兩半)인디, 호방(戶房)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존경(尊敬)을 허나? 아서라, 내가 말은 허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닭을 수밖에 도리가 없지 (박녹주제 흥부가, 김현룡(1), 2019, 285)

흥부는 백수가 되어서 굶고 배가 고프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여도, 양반이 아닌 관아의 아전들에게는 높임말을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본인이 호방과의 사이에서 을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기에 낮춤말도 쓸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말끝을 흐려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다. 양반의 허례허식은 춘향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춘향아, 양반의 법은 무슨 법인지 미장전(未丈前)에 외방작첩(外房作妾) 하였다 허면, 사당(祠堂) 참알(參謁)도 못 허고 베살질 끊어지고 족보(族譜)에서 이름을 돌린다니, 지금은 섭섭하나 아마도 훗 기약(期約)을 둘 수밖에 없다. (김소희제 춘향가, 김현룡(II), 2019, 89)

이몽룡은 비록 정식 혼례는 올리지 못하지만, 춘향에게 혼인서약편지를 써 주고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막상 남원을 떠날 때 춘향이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양반이 결혼 전에 기생첩을 얻으면 벼슬길도 끊어지고 족보에서도 내쳐진다고 변명을

하면서 춘향을 떨치려고 하였다. 조선 시대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신분이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 춘향은 이몽룡의 정실이 될 수 없었다. 실제로 춘향가의 초기 바디⁶를 보면 춘향이 정실이 되지 못한 것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후기 바디로 가면 춘향이 정실부인이 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신분상승에 대한 민중의 욕구를 대변해주는 장면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민중들의 정치의식은 어땠을까? 춘향가에는 이몽룡이 남원에 도달하여 농민들에게 정치 실정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을 한다.

“우리네 농부가 뭇을 알 것이오마는 들은 대로 말을 허자면 우리 고을은 사망(四妄)이 물밑 듯 험다 험디다.” “아니, 어찌하여 그렇단 말이오? “원님은 주망(酒妄)이요, 아전(衙前)은 도망(賭忘)이요, 책실(冊室)은 노망(老妄)이요, 백성은 원망(怨望)이라. 이리 해서 우리 고을은 사망(四妄)이 물밑 듯 험다 험디다.” “예, 이 고을 정사(政事)도 말이 아니구려.”(김세종제 춘향가, 김현룡(1), 2019, 189)

농민은 남원의 실정에 대해 4 가지 망령된 것들이 있으니 고을 관장은 술을 마셔 방탕하고, 아전은 도박을 너무 즐기고, 관장의 자문관은 주책없는 행동들을 하니 백성들은 원망할 뿐이라고 표현을 한다. 김소희제 춘향가에서는 농민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 남원(南原)은 사판이다. 어찌하여 사판인가? 우리 골 원님은 농판이요, 상천(上川) 응좌수(應座首)는 되판이라. 육방관속(六房官屬)은 먹을 판 났으니, 우리 백성들은 죽을 판이로다.”(김소희제 춘향가, 김현룡(II), 2019, 223)

남원에 대해 묘사하며 남원에는 네 가지 장면이 있으니, 원님은 놀고 즐기며 세월을 보내고, 좌수⁷(座首)는 착복하고 있으며, 관아의 아전들은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렸으니 백성들은 다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다. 즉,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남원 부사 변학도에 대한 평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의 정치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이 가득 찬 묘사인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판소리에는 민중들의 사회의식이 담겨있다. 이 시기 민중들은 가난한 현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양반 지배층에 대한 허례허식과 무능력에 대해 비판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또한 현실 정치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으며, 가난과 신분제를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판소리의 결말에 담고 있는 것이다.

⁶ 판소리 명창이 스승에게 사사했거나 혹은 창작해 부르는 판소리 한마당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⁷ 지방 관아에 소속된 자치 조직인 향소(鄉所)의 장

4. 조선 후기 민중의 민간신앙

앞에서는 간단하게 조선 후기 민중들의 지난한 삶을 들여다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으로 종교에 의존하고는 하는데, 따라서 종교를 살펴보면 그들의 가치 기준이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법이다. 조선 후기에는 민중 사이에도 유교식 가치관이 일상화되었다고 평가되는 시기인데, 판소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중들에게 여전히 기원의 대상은 전통적인 민간신앙이었다.

우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전통적인 칠성신앙이다. 칠성신앙은 북두칠성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전통적으로 북두칠성은 인간의 탄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신적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무병장수, 소원성취, 자녀성장, 안과태평 등을 바라는 민간의 소망을 칠성신에게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칠성신앙은 불교와 도교와도 융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불교에서는 칠성여래불이라고 부르고 사찰 안에 칠성각을 세웠으며, 도교에서는 칠성단이나 명도를 통해 신체화하거나 물이나 용과 연관지어 상징하였다.

그때여 춘향 모친은 후원의 단을 묻고, 북두칠성(北斗七星) 자야반(子夜半)의 촛불을 돋워 켜고 정화수를 받쳐 놓고…(김세종제 춘향가, 김현룡(1), 2019, 203)

춘향의 모친 월매는 춘향이 옥에 갇히자 자정에 정화수를 떠 놓고 이도령이 성공하게 해 달라고 북두칠성에게 기도를 하였다. 정안수라고도 불리는 정화수⁸는 새벽에 길은 맑고 정결한 우물물로 신령에게 바치는 공물의 의미로, 가난한 민중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 담긴 공물이었던 것이다. 길흉화복을 담당했던 칠성신앙에 대한 묘사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후원에 단을 묻고 북두칠성 자야반에 촛불을 도도 켜고 정화수를 떠 받쳐 놓고 두 손 합장 무릎을 꿇고,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 전에 비나니다. 천지지신(天地之神) 일월성진(日月星辰) 화이동심(化爲動心) 하옵소서. (박유전제 심청가, 김현룡(III), 2019, 83)

심봉사는 눈을 뜨기 위해 몽은사 불전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가난한 형편에 이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자 심청은 부친의 소망을 이루고자 공물을 바쳐야 하는 부처님이 아닌 칠성에게 지극정성을 드렸다. 심청은 집 뒤에 제단을 쌓은 후 역시 정화수를 떠놓고는 하늘과 땅의 신, 해와 달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천지신명과 일월성신은 무속에서 모시는 신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전해졌다. 심청가에서 불교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바쳐야하는 접근하기 어려운 종교이지만, 무속의 신은 정화수로도

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1177>(2022년 10월 31일 검색)

소원을 빌 수 있는 민간에게 보다 접근성이 좋은 종교였던 것이다. 칠성신앙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어 홍보가에도 등장한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怨讐)년의 가난이야. 복이라 허는 것은 어찌허며는 잘 타는고? 북두칠성(北斗七星)님이 복(福) 마련을 하시는가? 삼신제왕(三神帝王)님이 집자리으 떨어질 적⁹에 명(命)과 수복(壽福)을 점지(點指)허느냐? 뭍쓸 년의 팔자로다. 이년의 신세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 일이란 말이나?(박녹주제 홍보가, 김현룡(1), 339-341)

홍보 부인은 가난을 슬퍼하며 자신이 북두칠성과 삼신제왕에게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두칠성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이었고, 삼신제왕 즉 삼신은 아기를 점지해주는 신인데, 홍보 부인은 북두칠성에게도 복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태어난 시간인 연월일시의 팔자(八字)도 삼신에게 잘못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자신의 팔자를 한탄한다. 홍보 부인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두칠성이나 삼신을 원망하는 불경을 저지르지는 않고 그저 자신의 타고난 팔자를 안타까워한다. 삼신 신앙은 다른 곳에서도 등장한다.

심봉사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三神床)에 받쳐놓고 비는데, 여너 사람 같으며너 오직 조용히 빌렸마는, 앞 못 보는 맹생(盲生)이라, 삼신제왕(三神帝王)님이 깜짝 놀라 삼천리나 도망가게 빌것다. (박유전제 심청가, 김현룡(III), 2019, 31)

심학규는 아내가 아이를 낳자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출산과 아이의 성장을 담당하는 삼신제왕에게 상을 차리고 기도를 드렸다. 전통적으로 산통이 시작되어 산실을 꾸리면 윗목에 미역·쌀·간장 등으로 삼신상을 준비해서 순산을 빌었다. 그리고 순산하면, 임신부는 삼신상의 미역과 쌀 등을 내려 마련한 첫국밥을 대접받았다.¹⁰ 심학규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해도 삼신상을 준비하는 당대 세상의 이치는 공유했던 셈이었다.

판소리 속의 민중들의 삶에는 민간신앙과 함께 불교도 공존한다. 심학규의 부인 광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여기에 당대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들이 등장한다.

품 팔이 모인 재물 온갖 공을 다 드릴 제, 명산(名山) 대찰(大刹) 영신당(靈神堂)과 고묘총사(古墓叢祀) 성황당(城隍堂), 석불미륵(石佛彌勒) 서 계신 데 허유 허유 다니면서, 가사시주(袈裟施主) 인등시주(引燈施主) 창호시주(窓糊施主) 제왕불공(帝王佛供) 칠성불공(七星佛供)

⁹ ‘집자리으 떨어질 적’이란 것은 아이가 집 방안에 최초로 닿는 순간을 의미한다. (박녹주제 홍보가, 김현룡(1), 340)

¹⁰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453>(2022년 10월 31일 검색)

나한불공(羅漢佛供), 가지가지 다 하오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 남기
 꺾어지랴?(박유전제 심청가, 김현룡(III), 2019, 25)

여기서 영신당은 신령을 모신 당집, 고묘총사는 여러 잡신을 모셔놓는 사당, 성황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사당, 석불미륵은 중생을 인도하는 미륵부처를 의미한다. 꼭써 부인은 당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모두 발품을 팔았다. 뿐만 아니라 스님의 걸옷인 가사를 만들고, 부처님 앞 등불인 인등에 기름을 바치고, 불당의 창문을 바르는 종이도 바쳐서 공덕을 쌓았으며, 삼신제왕과 북두칠성, 나한부처께도 불공을 올리는 등 모든 재물과 노력을 다 바쳐서 아이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집의 마당에서 정한수로 소원을 빌 수 있었던 민간신앙과는 달리 불교는 특정 장소를 찾아 재물과 봉사를 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하는 민중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종교였다.

이상으로 판소리에 나타난 민간신앙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조선 후기 민중은 가난과 폭정, 불합리한 신분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은 민간신앙이었다. 판소리의 주인공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딸이 감옥에 갇혀도, 아버지가 공양미 300 석을 약속해도 기복을 하며 민간신앙에 의지했다. 판소리에 나타난 민중들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들은 내세의 구원을 기원하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에 주변의 모든 초월적 존재에게 기도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민중들을 소극적이라고 폄하하기는 어렵다. 공양미를 마련하기 위해 심청은 목숨을 던지고, 떠나가는 이몽룡을 잡기 위해 춘향은 앞길을 가로 막았으며, 흥부는 양반이라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지만 매품이라도 팔려고 했다. 이들에게 민간신앙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5. 맺음말

. 전통적으로 역사학에서는 글로 쓰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사와 경제사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날학파의 등장 이후 신문화사에 대한 연구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문화사 역시 쓰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판소리와 같이 구술로 전해지다가 채록된 자료일 것이다. 판소리는 흔히 민속악으로 분류되고, 그 내용은 문학에서 다루어졌지만, 소리꾼이 청자와 소통하면서 창작을 해 나갔다는 점에서 구술사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는 전승되던 가상의 이야기(혹은 설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지만, 공연이 진행되면서 청중들이 원하는 내용이 첨가되고, 판소리 주인공들의 삶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더해지면서 공연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주인공들의 삶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들은 판소리의 사설들인데, 이 사설에는 당대 민중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따라서 판소리는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게

된다. 판소리는 생활사나 사상사, 문화사, 가족사 등 조선시대의 문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판소리의 내용을 자료로 하여 당대 민중들의 사회의식과 종교의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판소리의 자료들을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판소리 속의 이러한 문화 분석은 이미 문학이나 음악,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벌써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역사학자들이 조선시대 후기의 신문화사에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장장식, 「민속학과 역사학의 통섭을 위한 비판적 성찰」, 『민속학연구』 30 호 : 117-139, 2012.
2. 임재해, 「민속학의 생활사료 인식과 역사학의 통섭」, 『한국민속학회』 61 호 : 7-53, 2015
3. 임재해,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한국역사민속학』 12: 243-276, 2001
4. 김광수, 「아프리카 역사학과 구전역사: ‘말하는 북(talking drum)’을 통한 역사전승」,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5(1): 3-36, 2012
5. 김현룡, 『한국 판소리 정수 I』. 박이정, 2019.
6. 김현룡, 『한국 판소리 정수 II』. 박이정, 2019.
7. 김현룡, 『한국 판소리 정수 III』. 박이정, 2019.
8. 한국민속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226> (2022 년 10 월 31 일 검색)
9. https://heritage.unesco.or.kr/%ED%8C%90%EC%86%8C%EB%A6%AC/?ckatt_empt=1 (2022 년 10 월 31 일 검색)
10.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27679&bsId=BBSMSTR_1008&mn=NS_01_09_01 (2022 년 10 월 31 일 검색)
11.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1177>(2022 년 10 월 31 일 검색)
12.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453>(2022 년 10 월 31 일 검색)